

세월호 참사 9년... 연극을 만난 엄마들

광주독립영화관 '장기자랑' 시사회

4·16가족단 '노란리본' 일상 담아 김소현 감독 "인간적 모습 그려내" 수인·동수·순범 엄마... 관객과 대화 4월5일 전국 개봉... 광주극장 상영

세월호 엄마들은 그날 이후 9년동안 상흔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낯은 지독했고 진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상을 살아내야 했다.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케이크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론 사소한 일에 세상을 다 건듯 같음을 빗기도 하는 남들의 보통 날처럼.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를 자녀로 둔 일곱 엄마들의 좌충우돌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장기자랑' 시사회가 지난 2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됐다. 영화 상영 이후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의 활동가 추말숙(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대표) 배우의 사회로 '관객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영화 '장기자랑'의 이소현 감독, 영화에 출연한 순범 엄마 최지영 씨, 수인 엄마 김명임씨, 동수 엄마 김도현씨가 참석했다.

영화는 단원과 희생자 및 생존자 학생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를 자녀로 둔 일곱 엄마들의 좌충우돌 일상을 담은 다큐 영화 '장기자랑' 시사회가 지난 2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됐다.

들의 엄마들이 극단을 구성, 연극 무대에서는 일상을 담았다. 엄마들은 2015년 심리 치유를 위한 바리스타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또다시 집에만 있을 엄마들이 걱정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연극'이었다.

엄마들은 지나가듯 말한 '재밌겠다' 한마디였지만,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결판' 출신의 전문 연극인 김태현 감독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정신차려보니 어느새 무대 위에 서있는 순간을 맞이한

다. '자식 잃고 뭐가 좋다고 연극을 해? 사랑만 모이면 도망가자'라는 생각도 잠시. 그런데 웬걸, 엄마들은 '연기'라는 뒤늦은 재능을 발견하고 열정을 불태운다. 급기야 세번째 작품 '장기자랑'의 배역 캐스팅을 두고 엄마들 사이의 질투와 갈등은 깊어지고 극단은 해체 위기를 겪는다.

실제 '4·16가족단 노란리본'은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학생들의 엄마들로 구성된 극단이다.

현재 수인 엄마 김명임씨, 동수 엄마 김

도현씨, 애진 엄마 김순덕씨, 예진 엄마 박유신씨, 영만 엄마 이미경씨, 순범 엄마 최지영씨, 윤민 엄마 박혜영씨가 소속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첫번째 작품 서민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그와 그녀의 옷장'을 시작으로 두 번째 작품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여정을 담은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세번째 작품 수학여행을 앞두고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기자랑', 네번째 작품의 인화된 '노란리본'이 바라본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을 다룬 '기억여행'까지 마무리하며 전국 200회 이상의 공연을 올린 베테랑 극단이다.

영화 '장기자랑'은 사회적 참사와 그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전형성을 비껴간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일곱 명의 엄마들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그들을 진상규명이나 피해자로서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는다. 단지 우연히 연극을 시작하며 세상 밖으로 다시 발을 내민 엄마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정신적 지주 리더 수인 엄마, 극단의 막내 동수 엄마, 외유내강 애진 엄마, 주인공 전문 에이스 예진 엄마, 재능 폭발 영만 엄마, 노란색 머리로 살기로 결심한 순범 엄마, 다른 엄마들과 달리 주인공이 아니어서 좋은 윤민 엄마까지. 이소현 감독은 "유독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다움이 요구됐다. 유가족들의 고통을 소모만 한 것 아닐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웃이다"며 "슬픔을 가진 사람의 욕망을 보여주는 건 불경스러운 일인가? 고민도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감춰질수록 '유가족은 이래야 해' 하는 편견이 공고해질 뿐이다. 이번엔 그 편견을 넘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순범 엄마 최지영씨는 "진상규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다. 앞이 캄캄하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왜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처벌받은 책임자는 왜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연극을 통해 맘을 다잡는다"고 말했다. 수인 엄마 김명임씨는 "연극과 영화를 통해 유가족다움에 대한 기대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 공연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지지해주는 시민들이 더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영화 '장기자랑'은 오는 4월5일 전국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극장에서 관람 가능하다. 4·16가족단 '노란리본'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오는 4월1일과 2일 안산 보노마루에서 엄마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룬 다섯번째 작품 '연속극' 무대에 선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광주박물관 정원에서 듣는 '숲 이야기'

10월까지 박물관 숲 이야기 운영 '박물관의 묘(卯)미' 주제 숲 해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박물관 정원에서 숲·문화·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3년 박물관 숲 이야기'를 운영한다.

박물관 숲 이야기는 박물관 정원을 거닐며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숲의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직접 체험·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과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 전시 관람 등의 테마로 진행된다.

세부내용으로는 △4월 박물관의 묘(卯)미 △5월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 △6월 나뭇잎 속에 숨은 색 △7월 벌레들, 나뭇잎 타고 놀다 △8월 숲속 마법사 △9

월 선사시대, 도토리의 꿈 △10월 가을 나뭇잎, 나랑 친구할래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협동조합 산림문화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며 프로그램 하나당 최대 20명 2팀(총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접수는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해당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062-570-7800)로 문의.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는 "매화·산수유·배롱나무 등 약 90여 가지의 다양한 수종이 뿌리 내리고 있는 박물관 정원에서 향긋한 봄 내음을 시작으로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체험하며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3인3색 컨템포러리발레 묘미를 민낯하세요"

광주시립발레단 발레살롱콘서트Ⅱ 내일·내달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3인 3색의 개성넘치는 컨템포러리발레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광주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광주시립발레단은 31일 오후 7시30분과 4월1일 오후 3시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발레살롱콘서트Ⅱ 'Ballet Curation(발레 큐레이션)'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았으며 초청안무자 정형일의 'Two Feathers(두개의 깃털)', 광주시립발레단 안무자 노윤정의 'Preview 2023(미리보기 2023)', 광주시립발레단 안무자 하승수의 '4 Basic Emotion(4개의 기본 감정)' 등 전체 3부로 구성됐다.



특히 초청안무자 정형일이 선보이는 'Two Feathers' 무대는 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티켓은 전석 2만원으로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서 '안무자와의 대화'도 진행해 관객들의 극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며 "그들만의 색채를 담은 3인 3색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통해 컨템포러리발레의 묘미와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두근두근 아시아 문화여행 떠나보세요"

ACC, 어린이창작실험실 운영 프로그램 8개... 오늘부터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4월9일부터 6월25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에 있는 어린이창작실험실과 어린이도서관에서 매주 주말 '어린이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아시아 문화여행'을 주제로 하며 △놀라운 여행 △즐거워 여행 △신기한 여행 등 3개의 소주제 아래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 어린이들은 아시아의 놀라운 역사 문화와 즐거운 현재, 신기한 미래의 모습을 탐구하고 상상하며 예술 창작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게 ACC관계자의 설명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굴동굴 아시아 △탈탈 무슨 탈?을 비롯해 동시대 사회 주제 및 작가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수상한 예술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 △견반위의 비트메이커 등이 진행된다.

또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체험해보는 △츄츄는 몬스터, 댄싱몬 △출발! 미래도시탐험 등이 준비되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체험관 및 ACC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전시 별



ACC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창작실험실'의 지난해 활동 모습. ACC재단 제공

책부록'을 새롭게 구성해 눈길을 끈다. 첫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체험관 신규 전시인 '감각과 표현: 아시아의 인형극'과 연계한 창작 활동 과정 △움직이는 기계 인형, 오토마타'를 준비했다.

이번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수강신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참여 가능 연령과 수강료가 다른 만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ACC재단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목~금 '학교 밖 아시아 여행'을 개설해 운영

하고 있다. 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단체 대상 'ACC 문화체험 나들이'도 4월11일부터 어린이 체험관과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진행한다.(문의 및 신청 1899-5566, edu@accf.or.kr)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아시아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탐구하는 문화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어린 시절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광주극장, 장국영 추모 20주기 '해피투게더' 상영

오늘부터 관람 가능

20년 전 거짓말처럼 세상을 등진 홍콩 배우 장국영. 추모 20주기를 앞두고 그의 대표작이 광주극장을 찾아온다.

광주극장은 장국영이 출연한 명작 중 하

나인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을 상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은 △30일 오후 7시30분 △4월1일 오전 10시 40분 △4월2일 오후 3시 △4월4일 오후 5시20분에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영화 해피투게더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보영(장국영)'과 '아휘(양조위)'의 슬프고 매력적인 러브 스토리를 다룬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국적인 풍경과 감성적인 선율의 탱고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보영'과 '아휘'의 이야기는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영화는 제50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도선인 기자